

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8. 25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주간 달러/원 동향(8/18~8/22)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미 P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달러 강세 반영하며 환율은 상승 출발. 이어 우-러 전쟁 휴전 관련 불확실성에 위험회피 심리 유입되자 추가 상승
- 중반, 7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한 강달러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영향에 1,400원선 근접
- 후반,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 짙어짐에 따라 보합권에서 등락. 이어 주 후반, 파월 의장 연설 경계감 속 1,400원 터치했으나 고점 매도물량 유입 등에 하락 전환 후 1,390원대 초반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달러/원 환율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확산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그로 인한 달러 약세에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및 고용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시장의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인식됨. 이에 달러 약세 및 위험 선호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주 요인으로 판단
- 다만, 한-미 정상회담과 8월 금통위, 미 PCE 물가 발표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을 고려할 때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90.0	1,400.5	1,382.6	1,393.2	+3.2

예상거래범위

1,375원 ~ 1,390원



유로·엔화 동향 (8/18~8/22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전 휴전 합의 무산 소식에 유로화는 약세 압력 받으며 출발. 이어 미-러-우 3자 정상회담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인식 속에 약세 흐름 지속
- 중반, 트럼프의 쿡 연준 이사 해임 가능성 등 금리인하 압박과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달러 약세 나타나자 강세 전환
- 후반, 미 제조업 경기가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큰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 금리인하 전망 후퇴로 인한 달러 반등에 크게 약세. 이어 주 후반, 파월 연준 의장의 정책 조정 가능성 언급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지자 달러 대비 큰 폭의 강세 보이며 1.17달러대로 상승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706	1.1743	1.1583	1.1717	+0.0011

엔화 동향

- 주초, 미 기대인플레이션 반등 소식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달러 매수세 유입 영향으로 엔화는 약세 출발. 이어 뉴욕증시 부진 등 위험회피 분위기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하자 약세 폭 일부 되돌림 시현
- 중반, 일본 7월 무역수지 적자 소식에도 트럼프의 쿡 연준 이사 사임 압박 등 연준 독립성 침해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 반영하며 강세
- 후반,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미 제조업 지표에 연준 금리동결 가능성이 재차 대두되자 달러 반등한 영향으로 큰 폭 약세. 이어 주 후반,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도비시켰다는 평가 속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미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에 강세 전환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7.2	148.8	146.6	147.0	-0.2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8/18~8/22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7월 미국 생산자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, 시차적으로 CPI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 반영에 따라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동조화 흐름 속에 출발. 이어 한은 총재의 국회 업무보고에서의 금융안정 의지 피력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영향과 성장 전망이 다소 낙관적으로 예상된 측면 등이 반영되며 상승세 지속
- 중반 들어, 연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속 소폭 약보합 전환한 양상
- 후반 들어, 트럼프 대통령 부정대출 의혹이 제기된 리사 쿡 연준 이사 사임 촉구 등으로 미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과 금통위 등에 대한 경계감에도 보합권 흐름 이어 간 후, 주 후반,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에 대한 근거 부재 발언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기존 포지션 축소 움직임 등으로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 반영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등도 영향 미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관세 관련 계획 발표에 대한 경계심 강화 속 인플레이션 압력 반영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망세가 우위 점하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
- 중반 들어, 뉴욕증시에서의 AI 산업에 대한 거품론 대두와 기술주 급락 여파 및 체코 원전 사업 계약의 불공정성 평가 대두 등으로 관련 업종들이 큰 폭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 전체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
- 후반 들어, 미 기술주 약세 지속과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코스피 약세를 견인했던 원전 및 방산 관련 업종 회복 속 4거래일 만에 반등 국면 전환. 이어 주 후반, 잭슨홀 미팅을 목전에 두고 연준 매파 성향에 대한 경계감 고조에도 저가 매수세 및 한-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강화 등으로 상승 흐름 유지하며 마감